

부정시험·교사 성범죄...지역교육계 '멘붕'

리뷰 2018 이 사건

(5) 시험지 유출·스쿨 미투

올 한해 광주·전남 교육계는 시험지 유출과 '스쿨미투'라는 초유의 사태로 끊임 없이 휘청거렸다.

광주와 목포·여수 등 고교 3곳에서 올 1년 동안 잇따라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학교 내선외선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교장·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일컫는 스쿨미투도 광주에서 잇따라 불거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시험지 유출, 광주·전남 고교 3곳서 올 7월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가장 먼저 시험지 유출 사건이 외부로 불거졌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 3학년 학생 일부가 "기숙사 친구가 보던 유인물에서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시험지 유출이 의심된다"며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다.

경찰수사와 언론 취재를 통해 '학교 행정실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은 고3 학부모(의사)가 짜고 1학기 중간·기말고사를 통째로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험지 인쇄·보관실 관리책임 맡고 있던 행정실장이 학부모 부락을 받고 시험지를 복사해 건넸고 아들은 시험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친 것이다.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는 학부모의 욕심과 행정실장의 도덕 불감증이 빚은 사건으로, 시험관리 등 학사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 시험지 유출 사건은 서울 속명영고 사건과 맞물려 이슈화되면서 교육부는 사과 입장 표명과 함께 시험지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추가로 터져나오는 시험지 유출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월 목포 사립고에서는 고3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 일부가 학생들에게 유출된 것이다. 학생들은 관리허술을 틈타 교사연구실 컴퓨터에서 영어시험 문제 일부를 출력하거나 자신의 이메일로 시험문제 파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문제를 빼돌렸다.

행정실장이 학부모와 짜고...학생들이 컴퓨터서 시험지 빼내고 3·중학교 1곳 스쿨미투...한 학교 교사 19명 검찰 송치도 자고나면 터지는 사건...학생·학부모·학교 1년 내내 전전긍긍

올 12월 여수 사립고에서도 뒤늦게 1학기 시험지 유출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 6월 실시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 학생이 국어, 영어, 일본어 등 3과목 시험지를 교사 컴퓨터에서 빼낸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15년 6월에도 교사가 제자인 조카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된 곳여서 학사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써 4곳, 또 터져나올까 전전긍긍 '스쿨미투' = 학생들이 교장·교사의 성추행·성희롱을 문제삼고 처벌을 요구한 이른바 '스쿨미투'는 고교 3곳과 중학교 1곳에서 다수 출제됐다. 시험지 유출이 의심된다"며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다.

경찰수사와 언론 취재를 통해 '학교 행정실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은 고3 학부모(의사)가 짜고 1학기 중간·기말고사를 통째로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험지 인쇄·보관실 관리책임 맡고 있던 행정실장이 학부모 부락을 받고 시험지를 복사해 건넸고 아들은 시험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친 것이다.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는 학부모의 욕심과 행정실장의 도덕 불감증이 빚은 사건으로, 시험관리 등 학사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 시험지 유출 사건은 서울 속명영고 사건과 맞물려 이슈화되면서 교육부는 사과 입장 표명과 함께 시험지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추가로 터져나오는 시험지 유출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월 목포 사립고에서는 고3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 일부가 학생들에게 유출된 것이다. 학생들은 관리허술을 틈타 교사연구실 컴퓨터에서 영어시험 문제 일부를 출력하거나 자신의 이메일로 시험문제 파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문제를 빼돌렸다.

주 J고다. 이 학교 교장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며 여학생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 학교 교장은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스쿨미투가 터져나온 광주 D고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교사 19명이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제자들을 성희롱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비위 정도가 중한 교사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 M고 스쿨미투 사건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입건된 교사 16명 가운데 1명은

성추행 혐의로, 4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경찰은 학생들로부터 '고발' 당한 나머지 11명의 교사를 모두 혐의 없음 처분 했는데, 학생들에게 가해자로 지목받은 교사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교사 성비위 대책' 발표 이후 광주 S중에서도 스쿨미투가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받은 교사 4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시험지 유출, 스쿨미투 사건 이후 발빠르게 사과를 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대책도 내놓았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들 사건의 경우 시스템 점검, 교육강화 만으로 소수의 일탈까지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앞으로 또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개관...광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가 26일 오후 동명로에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 1층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뜬금없는 사립유치원 갈등 중재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감사를 거부하며 광주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 중인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장휘국 교육감을 잇따라 면담, 갈등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뒷발을 날았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아닌 시의회 의장의 뜬금 없는 '갈등 중재' 행보가 정부 방침과 국민 정서에 맞서는 사립유치원 측에 힘을 실어주고, 교육청 감사의지를 약화시키는 잘

못된 신호'를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교육청 주차장에서 천막농성 중인 유치원 원장들을 잠시 면담한 후 장 휘국 교육감과 20여분간 면담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원장들이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현재 원생 모집시기인데다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예정돼 있어 감사를 잠시 연기해 달라는 게 그분

들 요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면담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장 휘국 교육감은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 등을 거론하며 감사연기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의 농성장 방문·교육감 면담 소식 이 알려지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국회 감용진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고 민주당도 유치원 3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같은 당 광역의

교육감 면담, 농성 원장들 입장 대변 "당 방침과 배치...부적절 처신" 눈총

회 의장으로 처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장은 통화에서 "최근 의회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찾아왔고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는 식의 민원 요청도 있었다"면서도 "이날 교육감 면담은 갈등 중재를 위한 것으로 감사와 관련한 어떠한 압력성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달뜨기 22:38
해질 17:27 달짐 11:19

하루종일 '맑'

밤부터 서해안에서 눈이 오겠다.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2.0~3.0	북서~북	2.0~4.0
	면바다	북~북동	2.0~4.0	북서~북	2.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5
	면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남해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수치	시각	수치
목포	10:25	05:15	23:07	18:00
	06:01	12:37	18:43	--:--
여수	10:25	05:15	23:07	18:00
	06:01	12:37	18:43	--:--

◇주간 날씨

날짜	28(금)	29(토)	30(일)	31(월)	1/1(화)	2(수)	3(목)
날씨	☁	☁	☀	☀	☀	☀	☀
기온	-4/0	-6/0	-5/1	-4/4	-3/3	-3/4	-3/5

서남해안 7cm 폭설...광주·전남 영하 8도 한파

27일 밤부터 28일까지 전남서해안 지역에 최대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광주·전남 전역에 영하권에 머무는 등 강력한 한파도 예고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몽골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휴일인 30일까지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26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 영향으로 목요일인 27일 밤부터 전남서해안에 눈이 시작돼 28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에 눈이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간 예상되는 눈의 양은 목포·함평·영광·신안 등 전남 서해안 2~7cm, 광주

및 전남 내륙권 1~3cm. 기상청은 이번 눈은 27일 밤과 28일 아침에 집중됐으며, 곳에 따라 대설특보 발령 가능성도 열어뒀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 서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상 2도로 중일 추위가 맹위를 떨치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휴일인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기 흐름 등 기상여건에 따라 때론 추위가 1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적잖은 눈을 동반한 강력한 한파 탓에 출퇴근길 교통사고와 수도관 동파, 시설하우스 농작물 및 양식장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내달 21일까지 근로자의 날 포상 대상자 신청 접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달 21일까지 모범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 근로자의 날 포상 대상자 신청(국민추천)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근로청소년·노조 간부·노사관계 발전 유공자이며, 여성·장애인·현장직·중소

기업 노동자 등을 우선 추천할 계획이다. 포상은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말에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광주고용노동청에서는 훈장 4명, 포장 2명, 대통령 4명, 국무총리 3명, 장관 10명 등 총 23명을 포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566-9988

8 5 1
1 6 5 2 4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6 2 8 1 0 9 7 3
5 7 6 2 1 4 3 0 2
4 8 1 7 8 0 0 0 0 0 0 0 0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